

소득·자산 안따진다…‘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

ECONOMY

2025년 5월 1일 목요일

국토부, 광주·전남 256호 등 올해 5000호

보증금 보호 주거환경 보장 등 제도 신설도

광주·전남지역에 소득도, 자산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256호가 올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개시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최대 8년간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식이다. 전세사가 등으로 인한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이 가능하다.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

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기준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한다.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로 지원한도액은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은 2억원, 광역시는 1억2000만원, 기타지역은 9000만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서울 1449호, 인천 500호, 경기 722호)이며, 비수도권은 2279호다.

광주·전남의 경우 모두 256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서울 1200호, 경기 500호를 이어서 모집한다.

LH 모집사항은 LH정약풀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하반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이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폐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웅 상무(오른쪽)와 CJ대한통운 P&D 수송사업담당 이정현 경영리



광주지방조달청은 30일 광주지방행정청에서 전통문화상품 기업과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

금호타이어, CJ대한통운과 전략적 MOU

“모빌리티 서비스 강화”

기술을 결합, 고객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타이어 교체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CJ대한통운과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진행된 MOU에는 송대규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와 이정현 CJ대한통운 P&D 수송 사업담당 경영리더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이어 방문 문장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에 필요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의 물류 인프라와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전문

김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조달청,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

전통문화상품 제조기업 5곳·수요기관 직접 구매상담

광주지방조달청은 30일 광주지방행정청에서 전통문화상품 기업과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는 지역 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

공사, 영암교육청 등 수요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우환 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상품 제조기업의 공공판로를 확대하고 수요기관에는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상생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수요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

한전 UAE 원전사업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

역대 수주금 1위·한국형 원전 수출 등 성과

한국전력의 UAE 바리카 원전사업이 대한민국 해외 건설 역사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인정받아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현정됐다.

3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한 ‘해외건설 60주년·1조 달러 달성 기념식’에서 한전의 UAE 바리카 원전사업이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되며 대통령 기념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해외 사업 역량과 글로벌 원전 건설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된다.

10대 프로젝트는 국토부가 주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평가 항목은 수주 금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이다.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현정된다.

UAE 바리카 원전사업은 역대 수주금 액 1위(191억 달러), 한국형 원전 수출·수주 1호 프로젝트로 평가받아 바리카 원전사업의 상징성과 국제적 위상이 국민들과 산업계 모두로부터 높이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상식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30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CEO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은리더스클럽 2025년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광은리더스클럽은 이날 ‘사랑나눔 봉사 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CEO가 알아 할 AI 트렌드’라는 주제로 장동선 교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전남서부클럽 신임 지회장으로 유인숙(유) 유일 대표를 선임했다. 지난 2007년 9월 창립해 18주년을 맞은 광은리더스클럽은 25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들의 모임이다.

한전은 지난 2009년 12월 UAE 원전 사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바리카 지역에 건설했다. 이 중 마지막 4호기는 지난해 9월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에 돌입했으며, 현재 바리카 원전은 UAE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바리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건설·운영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벤치마크 사례로 자리잡은 것을 국민들이 높이 평가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추가 원전 수출과 다양한 해외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은 30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CEO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은리더스클럽 2025년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고객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우뚝 서는 동시에, 광은리더스클럽이 금융기관 최고의 명품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

으로도 광주은행의 역동적인 행보에 광은리더스클럽 회원 여러분께서 끌끌이 동행해주시리라 믿으며, 모든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과 견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출, 보증 지원,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며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 및 역량 강화와 상권 활성화·특성화 지원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온라인 판로 개척, 스마트 기술 도입, 디지털 마케팅 교육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시설 현대화보다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며 “이번 대선공약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주경총은 우선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단체는 “단순히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업종별·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저금리 대출, 보증 지원,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며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셀바이오, 수도권에 R&D 허브 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등 연구

항암면역치료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330.5m²(100평) 규모의 수도권 R&D 허브를 설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문정동 R&D 허브에서는 ALITE(Advanced Light bispecific T cell Engager) 이중형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가 진행된다. 이중형체 기술은 세포치료제 기술에 접목, 면역항암제 종양 표적률을 더욱 높이는 기술 융합이 시도될 예정이다.

아울러 항체개발 기술을 접목해 고령암을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CAR(키메리 항원 수용체)-T, CAR-NK 세포치료제 개발도 추진된다.

특히 주사제 중심인 항반변성 치료제 시장에 혁신적인 개량신약인 접안제(eyedrop)를 개발해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수행된다. 박셀바이오가 개발하는 항반변성 접안제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채택해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박셀바이오는 AI 기술로 췌장암 등 치료와 관련해 확보한 10종의 화합물 후보 물질과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이사는 “문정동 연구소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 박셀바이오의 수도권 R&D 허브의 역할을 할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이 축적된 첨단 기술의 상용화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박셀바이오의 다양한 면역항암제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광주인자위 특화훈련분과위 고용위기 대응 방안 등 논의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2025년도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제2차 특별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훈련과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16개 기관에서 제안한 26개 훈련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인자위에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제1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공모, 모두 18개 훈련기관에서 45개 훈련과정이 접수됐다. 이후 지역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17개 훈련기관, 26개 훈련과정이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광주시 9대 대표산업을 육성하기로 논의가 됐으며 전문가 의견을 거쳐 지난달 17일 광주인자위 본위원회에서 훈련직종을 의결한 바 있다.

광주시 9대 대표산업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4대 도전산업’인 반도체, 디이터산업을 비롯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전략산업’인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케어, 지역의 근간인 ‘2대 기반산업’인 광융합·가전, 스마트뿌리 산업이다.

이후형 광주인자위 사무처장은 “올해에도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 위기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산업 분야의 자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전직 교육과 지역에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등을 위한 훈련·인력 수요를 발굴해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며 “지역 구직자와 제직자의 직무능력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